고은 불교 대하소설

내려가노라면

〈55〉

흑암의 산길을 내려온 두사람에게는 금강산이란 말조차…

천 년도 더 넘게 걸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무슨 쳇줄처럼 이어오고 있다. 진부하다면 진부하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은 진부하다고 해서 쉽사리 없어지지도 않는 동안 멀리 깜박이는 불빛과도 같이 때가 되면 되살아나고는 하였다.

그러므로 오래된 술, 오래된 벗, 오래된 헌 책과 함께 오래된 한 마디 말의 그 진부함이 도리어 다른 시대에는 싱그러운 것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이 금강산 아래의 이 골짝 저 골짝들의 공간을 그어갔다. 그렇지만 그 공간 어느 곳도 금 그어진 데가 없이 곽 저물어갔다.

"좀 있으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개골산(皆骨山)에는 헛디디어 죽은 귀신들이 골짝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하지 않던가. 아무튼 재촉해 보세나."

그들은 온 정신을 단전(丹田)에다 두는 따위의 수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에 직면한 어둠 속에서 온통 발바닥에 그 정신을 집중시켜 한걸음씩 디디어 내려갔다.

수월의 짐작이 워낙 맞아 떨어졌다. 사람중에는 길눈이 밝은 사람도 있다. 수월이 표훈사 언저리로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은 것은 다행이었다.

"귀에 익은 물소리로군."

과연 고개 하나를 어렵사리 넘자 그 어둠 가운데서 물소리가 어느 물소리도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물소리를 지속시키고 있었다.

그럴진대 물도 정진하는 물이 있는지 모른다. 잔잔한 물은 잔잔한 공부를 하고 폭포는 폭포의 돈수(頓修)로 공부를 다그치는 것이라면 이 표훈사 언저리의 물소리는 한동안의 용맹정진과는 달리 두고 두고 우랑차게 하는 공부와도 같았다.

"항심(恒心) 일세."

"무엇이 말입니까?"

"물소리."

"물소리를 소리라 하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귀라고 되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시러베아들놈이 있어야 심심치 않겠지."

그때 과현이 돌뿌리에 발등을 다쳤다. 그대로 주저앉아야 하였다.

"많이 아프신가?"

"제법입니다."

"내가 들쳐 업어야겠네."

"이 밤중에 누가 누구를 업고 누가 누구의 등에 업힙니까? 그런 얕은 도깨비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과현화상! 그대가 이제는 구업(口業)이 한창이네."

"수월스님을 따라가기에는 천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 받는 동안 그것이 대화요법(對話療法)의 효험이라도 되었던지 과현의 다리가 펴질 수 있었다.

그들이 내려온 금강산의 어디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웬만한 밤이면 이 산중의 골짝과 비탈따라 사람이 있어서 그 할아의 불빛들이 자랑이던 시절이 있던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흑암(黑暗)의 산중이야말로 비로봉 비로자나불의 법신(法身)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 그냥 내려가보세."

그들이 내려가다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이미 표훈사 언저리에 대한 짐작이 불가능해진 판이어서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앞을 가로막는 그것에 다가갔다.

틀림없이 돌담이었다. 그 돌담을 손으로 짚어가며 내려가다가 문을 만났다. 그 문을 열었다. 문짝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눈발이 마구 퍼붓기 시작하였다. 어둠 속이므로 눈이 흰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었다.

"암자인듯 합니다."

"들어가세."

두사람은 마치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듯이 들어갔다. 이마에 부딪치는 것이 있었다. 아픈 이마를 숙여서 더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들은 눈을 맞지 않을 수 있었다.

다행히 하늘을 가리는 곳에 이르러 눈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우선 내려오는 동안 무척 지쳤고 배속이 비어서 빈 몸이 오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이라도 한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과현의 입에서 이런 말이나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제까지의 편력승(遍歷僧)다운 정신의 경지가 다 거덜난 것인가. 지친 몸이고 배고픈 몸이고 추운 몸이면 거기에서 정신이 먼저 나가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술 한잔 생각이 난 것인가.

그렇다면 과현은 그동안 무욕도에서 제법 공부랍시고 한 처지였건만 그 이전의 뽀사공에 지나지 않고 포구에 닿은 배에서 내린 술꾼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하였다. 지난 날의 일이 어찌 지난 일이겠는가. 그것은 조금만 파보면 거기에 묻혀있는 현실로서의 오늘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일이나 수천년전의 일이나 그것이 한갖 과거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가.

원시경전 가운데 많은 본생담(本生譚)들이 있다. 본생담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었던 것이다. 지혜를 분간할만한 신새벽에 보니 그 폐가 안에는 뼈다귀들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기도 한 것 같았다. 아니 짐승의 것이기도 한 것 같았다.

"장차 우리도 이 지경일 걸세."라고 수월이 잔뜩 오그라붙은 몸을 뽑을 듯이 펴서 거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천하 명산에서의 신산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내려온 두사람에게는 '금강산…'이라는 말이 나올 턱이 없었다.

산촌의 이른아침은 비록 가난하기 짝이 없건만 그 시래기죽 끓이는 연기만은 푸짐하여 사람이 함부로 그려낼 수 없는 하나의 절경(絶景)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아침 연기! 그것은 하나의 울음이기도 하였다.

"한 집에 들러볼까요?"

과현이 말하였다.

"그냥 가세."

라고 수월이 앞장섰다. 굳이 가난한 아침 시래기죽을 염치없는 나그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인심을 바라는 것도 구차하거니와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난 그곳 산촌의 사람의 배고픔이란 또한 얼마나 허전하기 이를 데 없음이겠는가.

아무튼 살아있는 목숨에 잠겨있는 정신의 높이도 헤아리기 힘든 노릇이거니와 그 목숨에게 필요한 먹거리의 절실한 바는 차라리 정신에 견주어질 것이 못되었다.

계달음이란 배고픔인가
삼계대도사 (三界大導師)
얼마나 배고프신가

진 사람의 삶이기도 하였다.

관상가 산도(山濤)가 나타나 그런 술꾼이 노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과연 죽순은 공경대부(公卿大夫)는 물론이거니와 저잣거리 건달이나 누구네 헛간 머슴 그리고 북녘 오랑캐, 천한 목동에 이르기까지 두루 그와의 수작에 흠뻑 젖어있었던 것이다.

고려 천하에 이만한 인걸이 나는 일이야말로 큰 사건일 터였다. 관상가가 말하였다. "어느 여인이 이토록 빼어난 기란아(麒麟兒)를 낳았을고? 그러나 나라와 백성을 그르칠 일도 반드시 이 사람의 몫이로다"라고 하였다.

그 뒤 죽순은 정부에서 손님접대의 버슬을 맡아서 아무리 속이 갈거나 좁은 타국 사람도 그에게 마음 속의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없으니 그는 왕실의 첩보원 노릇까지 겸할 수 있었다.

그런 왕실의 지나친 신뢰는 이 사람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끝내는 왕이나 왕족이 그와의 술자리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왕은 끝내 민심을 멀리했다가 추방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런 사연으로 된 가전체(假傳體) 소설 '국순전'까지 떠올리는 것으로 과현은 그 밤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정작 술보다 술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그 밤을 보내는 힘이 된 것인가.

날이 새자마자 이미 발이 빠지는 눈위를 걸어서 금강산 밑의 산촌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간밤 눈발을 막아줄 처마는 암자의 그것도 아니었다. 한 산막 폐가였던 것이다. 지척을 분간할만한 신새벽에 보니 그 폐가 안에는 뼈다귀들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기도 한 것 같았다. 아니 짐승의 것이기도 한 것 같았다.

"장차 우리도 이 지경일 걸세."라고 수월이 잔뜩 오그라붙은 몸을 뽑을 듯이 펴서 거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천하 명산에서의 신산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내려온 두사람에게는 '금강산…'이라는 말이 나올 턱이 없었다.

산촌의 이른아침은 비록 가난하기 짝이 없건만 그 시래기죽 끓이는 연기만은 푸짐하여 사람이 함부로 그려낼 수 없는 하나의 절경(絶景)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아침 연기! 그것은 하나의 울음이기도 하였다.

"한 집에 들러볼까요?"

과현이 말하였다.

이것은 수월의 눈에 차가운 눈물 몇방울이 그렁그렁 아롱진 뒤에 신음하듯 읊어본 소리였다. 수월도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것을 부차에 빗댄 것이다.

배 고픈 것 뿐 아니라 온몸이 마치 첫눈 맞은 강원도 덕장 동태와도 같이 뻣뻣하였다.

수월이 하다못해 과현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춤이나 추세."

"네?"

"춤말이네."

"춤이라면 굶주린 귀신춤이 되겠습니다."

"그도 좋지 않는가."

그들은 산속 어귀를 지나면서 거이 억지 춘향격으로 서로 손을 맞잡다가 떼어놓다가 하며 거지춤을 추고 있었다.

조선후기 장시(場市) 가녘이나 마을어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광경이 쌍거지의 춤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춤을 두사람이 추고 있었다.

그때 산촌에서 한 영감이 입김을 하얗게 토하며 달려왔다.

"당신들 빈 속이지요?"

"아닙니다."

라고 수월이 시치미를 뗐다.

"흠! 중이 거짓말을 하면 거기서부터 파계 아니오?"

그 영감이 말하였다. "갑시다. 우리 집에는 잔치상 하나가 차려져 있으니"

이렇게 말은 넉넉하지만 결코 그 영감의 사정도 딱할 지경이었다. 과현이 그 영감을 사양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갈길이 바쁩니다."

그림 · 조향숙

> *배고픔뿐아니라 온몸이 첫눈맞은 동태처럼 뻣뻣하였다. "우리 춤이나 추세"*
> *그들이 억지 춘향으로 쌍거지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영감이 달려왔다*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2월 23일(토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 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眞玉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매일신문
春川產 白玉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기도법회
귀의 삼보하옵시고
본 약수암에서는 미얀마(버마)에서 모셔온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이신 황금광명사리정골사리, 골(骨)사리, 혈(血)사리, 근육사리 머리카락사리 친견법회 및 기도법회를 개최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가피를 입으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황금광명사리는 국내 처음으로 어렵게 모셨습니다.
약수암 주지 합장
친견법회 및 기도 입제일
1995년 12월 2일(양력)
경북 영주시 영주2동 118-1번지 약수암
전화 0572-635-6331

탈종공고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74-9
■사찰명: 대 원 암
■교 임: 양 영 옥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으므로 본종을 탈퇴합니다.
1995. 12. 1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